

중국 고전 詩詞와 현대 음악과의 상관성 연구

朴南用* · 金英明**

目次

- I. 들어가는 말
- II. 중국 고전시의 현대 가곡으로의 음악화
- III. 중국 唐宋詞의 현대 가곡으로의 음악화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현대 중국에서는 전통 詩詞를 가곡이나 대중가요로 음악화 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새롭게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문학 형식에서 대중매체를 활용한 음악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작업으로, 문학과 음악의 상호 관련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시각적인 문자를 통하여 책의 형태로 접하게 되는 문학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청각적인 음성을 통하여 선율과 리듬이 있는 음악의 형태로 전환되는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학의 가곡 또는 대중음악으로서의 확산 현상은 모든 문학장르에 적용되거나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학의 장르상 비교적 음악성이 강조되는 시나 사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시나 사 문학은 음악화 하여 부를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시사와 음악이 결합되는 새로운 음악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 전통 시사 문학이

* 한국외국어대학교 BK21신한중문화전략사업단 연구교수. parknamyong@hanmail.net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연수생. ymkim518@yahoo.co.kr

현대 가곡 또는 대중음악으로 새롭게 창작되어 또 하나의 예술이 탄생되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현상을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전통 시사가 현대의 가곡 또는 대중음악으로 창작되는 문화 현상의 실태를 이해하며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을 유형화하여 파악해봄으로써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현대 음악문화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문학과 음악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본래 문학의 기원은 음악과 같은 것이었다. 윤희병은 문학과 음악과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는 바, 하나는 원시예술에서와 같이 문학과 음악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노래말이 곧 시였고 그 시의 읽기가 곧 노래였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시를 가곡으로 작곡하여 노래화한 경우라고 하였다.¹⁾ 이처럼 윤희병은 문학과 음악의 관계를 비교문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문학과 예술 간의 상호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과 음악의 관계를 상호 조명하는 비교문학 연구방법은 이미 독일과 영국의 낭만주의부터 상징주의에 이르면서 그 위상이 강해지고 있다. 스티븐 폴 셰르(Steven Paul Scher)는 음악과 문학의 관계를 첫째, 음악과 문학(성악곡), 둘째, 문학 속의 음악(기악곡, 음악적 구조와 기교), 셋째, 음악 속의 문학(프로그램문학)으로 나누고 있다.²⁾ 이처럼 문학과 음악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비단 서구의 비교문학 연구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의 문학전통상 문학과 음악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현대 시론가 朱光潛은 시의 기원을 밝히며 시가는 음악이나 무용과 그 기원이 같다고 하며 시가와 음악과 춤의 同源說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鄭玄의 《詩譜序》의 “《虞書》에서 말하기를 시는 뜻을 말한 것이며 노래는 말을 길게 읊은 것이며 소리는 가락을 따라야 하며 음률은 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즉 시의 도가 이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인용하고 있다.³⁾

1) 윤희병 저, 《비교문학》, 서울: 민음사, 1995, p. 302

2) 이혜순 외 저, 《비교문학의 새로운 조명》, 서울: 태학사, 2003, p. 141

3) 《虞書》曰,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然則詩之道放於此乎! 朱光潛 지음, 鄭相泓 옮김, 《詩論》, 서울: 동문선, 1991, p. 13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시는 뜻을 말한 것이며 노래는 말을 길게 읊은 것이라고 시와 음악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시의 기원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오래되었으며 시라는 것은 내재된 정감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혹은 외부에서 받은 인상을 ‘재현’하는 것, 또는 순수하게 예술형상으로 쾌감을 일으키는 것 등으로 그 기원은 모두 인간본성을 기초로 한다.⁴⁾ 朱光潛은 시와 음악의 관계를 서술하며 소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밝히며 시가 사용하는 소리는 언어의 소리로써 언어의 소리는 반드시 의미를 동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와 음악은 차이점도 가지고 있는 바 음악의 리듬은 악보화 할 수 있어도 시의 리듬은 악보화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 하지만 시대가 발달할수록 시와 음악, 그리고 춤은 각기 그 예술의 고유한 특성인 언어, 노래, 무도 등의 삼위일체에서 점차 벗어나와 독립적인 예술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국 고전 시사는 여전히 음악성을 기초로 하여 압운과 평측, 그리고 대구를 강구함으로써 律의 형태를 지향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도 중국의 고전 시사는 현대 음악가들에 의해 새로운 서정가곡과 혁명가곡 등 다양한 예술가곡으로 창작되어 문학과 음악의 결합이 시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학과 음악의 관계에 착안하여 중국 고전 시사가 현대 가곡으로 음악화 되는 현상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중국 고전 시사 중 어떤 작가와 작품이 음악화 되어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며, 그것들이 지니는 의미와 특징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 고전시가 음악화 된 것으로 詩經과 楚辭 이래, 唐나라 때의 李白의 시사들, 그리고 晚淸 시대의 秋瑾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중국 唐宋詞가 음악화 된 것으로 蘇軾의 작품 〈水調歌頭〉 〈大江東去〉 등을 비롯하여 岳飛, 李清照, 姜夔 등의 詞 작품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특히 이러한 작품들이 현대 예술가곡으로 창작되어 중국 현대음악사에서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어떻게 청중들에게 수용되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朱光潛 지음, 위의 책, p. 20

5) 朱光潛 지음, 위의 책, p. 174-191

II. 중국 고전시의 현대 가곡으로의 음악화

중국 전통 시사에서 현대 대중으로 불리어지는 것은 먼저 시나 사가 근본적으로 음악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탄생한 장르이며, 시나 사의 주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남녀의 애정이라는 인간 보편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중국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인 詩經이나 楚辭가 문학과 음악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탄생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외래 종교나 외래 문화, 그리고 외래 음악의 전래를 통하여 중국문학의 변화를 일으켰듯이 唐宋代의 문학작품은 서역의 음악과의 융합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작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고전시는 음악적 특성이 강하게 살아있으며 시 자체의 음악성과 더불어 외래 음악의 영향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여 나갔다. 특히 詩經과 楚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며 당대 근체시와 송대의 詞 문학을 발전시켰다. 중국 고전시를 현대 가곡으로 음악화한 작품은 고전 唐宋詞를 현대 가곡으로 음악화한 것보다는 양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詩經과 楚辭를 비롯하여 당나라의 대표적인 李白의 작품을 현대 가곡으로 음악화 하여 창작하였다. 먼저 詩經과 楚辭의 작품이 음악으로 창작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에서 詩經과 楚辭는 가장 오래된 시가의 원류로 현대에까지 그 연구와 비평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장 오래된 시가와 음악의 관계에 주목하여 현대 가곡으로 창작한 작품은 1940년대에 들어서였다. 물론 1920-30년대에도 현대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서정시 작품을 서정가곡이나 혁명가곡으로 창작한 경우는 많이 있다. 趙元任은 1928년에 《新詩歌集》를 창작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胡適, 劉半農, 劉大白, 徐志摩 등의 백화 신체시를 음악화 하였다.⁶⁾ 이들 시인들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5·4 시기의 과학과 민주

6) 예를 들면 胡適의 〈小詩〉 〈上山〉 〈他〉 〈也是微雲〉, 劉大白의 〈賣布謠〉, 劉半農의 〈織布〉 〈嗚呼, 三月一十八〉 〈教我如何不想他〉 〈聽雨〉, 徐志摩의 〈海韻〉 등의 많은 작품이 있다. 汪毓和 編著, 《中國近現代音樂史》,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9, p. 86-90

정신에 입각하여 중국 사회현실을 반영한 가곡으로, 학생들의 개성해방과 자유연애의 걱정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많은 혁명 가곡들이 창작되었는데 대체적으로 田漢의 작사에 의한 것이 많았으며, 조선인 정율성이 작곡한 〈延安頌〉도 있다.

1940년대에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혁명가곡들이 창작되는 가운데 國統區 지역에서는 이와는 다른 음악들이 창작되었다. 이 지역은 국민당을 위주로 국공합작 형식의 국민정부 통치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國統區’ 지역으로 불리어지며 다양한 음악의 노래들이 창작되었다. 1940년도에는 國統區 각 지역에서 각종 음악 관련 전문학교들이 설립되며 음악 인재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사회현실과 결합된 각종 대중적인 성악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 속에는 당시의 항전 현실들을 반영하며 파시즘 통치에 반대하는 각종의 풍자가곡, 서정적인 예술가곡, 설창적인 서사가곡들이 창작되었다. 특히 합창곡 작품으로 중국 전통 시가인 《詩經》을 합창곡으로 창작한 詩經의 〈呦呦鹿鳴〉(江定仙의 혼성 사부합창), 〈蒹葭〉(陳田鶴의 혼성 사부합창)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유유히 우는 사슴의 울음소리 / 들판의 대쭈를 뜯어 먹네 / 내 아름다운 손님이 있으니 / 비파를 타고 생황을 부네 / 생황을 불며 생황의 울림판을 두드리며 / 광주리를 받들어 폐백을 올리네 / 나는 좋아하는 사람은 / 나에게 大道를 보여주네.

유유히 우는 사슴의 울음소리 / 들판의 체비쭈를 뜯어 먹네 / 내 아름다운 손님이 있으니 / 德音이 매우 밝아 /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경박하지 않게 하니 / 군자가 이것을 본받네 / 내 맛있는 술 있으니 / 아름다운 손님 잔치에 참여하여 노네.

유유히 우는 사슴의 울음소리 / 들판의 금풀을 뜯어 먹네 / 내 아름다운 손님이 있으니 / 비파를 타고 거문고를 타니 / 비파를 타고 거문고를 타네 / 화락하고 또 즐겁도다 / 내 맛있는 술 있으니 / 손님의 마음을 안락하게 하네.

-- 詩經의 〈呦呦鹿鳴〉 7)

7) 呦呦鹿鳴, /食野之苹. /我有嘉賓, /鼓瑟吹笙. /吹笙鼓簧, /承筐是將. /人之好我, /示我周行.

이 작품은 《詩經》의 小雅에 들어있는 작품으로, 正樂의 노래로써 賓客들을 燕饗하는 것을 읊은 시이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손님들을 비파와 생황을 불며 음악으로 흥을 돋구며 맛있는 술로 손님을 편안하게 대접하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비교적 4언체의 시구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끔 6언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시구들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백화체적인 구어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詩經의 특성상 무엇보다 고대의 문학은 음악성을 충분히 고려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으며 궁중에서 베푸는 연회적 성격을 지닌 노래로 불리어진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유갈대가 푸르니 / 흰 이슬 서리가 되었네 / 이른바 저 사람은 / 물가의
한쪽에 있네 / 물결을 거슬러 올라 따라가지만 / 길은 막히고 또 길구나 /
물결을 따라 내려가며 따라가지만 / 완전히 물의 중앙에 있네

갈대가 싸늘하니 흰 이슬 마르지 않았네 / 이른바 저 사람은 / 물가의
한쪽에 있네 / 물결을 거슬러 올라 따라가지만 / 길을 막히고 또 높구나 /
물결을 따라 내려가며 따라가지만 / 완전히 물의 모래섬에 있네

갈대를 베니 / 흰 이슬 다하지 않았네 / 이른바 저 사람은 / 물가에 있네
/ 물결을 거슬러 올라 따라가지만 / 길은 막히고 또 오른쪽으로 트네 / 물결
을 따라 내려가며 따라가지만 / 완전히 물의 모래섬에 있네

-- 〈蒹葭〉 8)

이 작품은 《詩經》의 秦風 속에 들어있는 작품으로,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8구로 되어 있다. 이 시는 襄公을 풍자한 시로, 周나라 禮를 쓰지 아니하여 장차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가 없어서였다고 한다.⁹⁾ 추수

// 呦呦鹿鳴, / 食野之蒿. / 我有嘉賓, / 德音孔昭. / 視民不佻, / 君子是則是攸. / 我有旨酒, / 嘉賓式燕以敖. // 呦呦鹿鳴, / 食野之芩. / 我有嘉賓, / 鼓瑟鼓琴. / 鼓瑟鼓琴, / 和樂且湛. / 我有旨酒, / 以燕樂嘉賓之心.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8, p. 350-353

8) 蒹葭蒼蒼, / 白露爲霜. / 所謂伊人, / 在水一方. / 溯洄從之, 道阻且長, 溯游從之, 宛在水中央. // 蒹葭淒淒, / 白露未晞. / 所謂伊人, / 在水一湄. / 溯洄從之, 道阻且躋, 溯游從之, 宛在水中坻. // 蒹葭采采, / 白露未已. / 所謂伊人, / 在水一澗. / 溯洄從之, 道阻且右, 溯游從之, 宛在水中沚. 成百曉 譯註, 위의 책, p. 276-277

9) 成百曉 譯註, p. 278

가 끝나고 강가의 갈대가 푸르렀다가 말라가고 있는데 ‘저 사람(伊人)’은 물가의 한쪽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물가의 한쪽에서 또는 물의 모래섬에서 물결을 따라 흔들려가는 갈대의 이미지가 어렵듯이 연상된다. 또한 1938년 항전 초기에 《詩經》 秦風의 〈無衣〉를 음악으로 창작되었는데, 중국 고대 사회현실을 빗대어 현대의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애국열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는 “어찌 옷이 없어 /그대와 솜옷을 함께 입겠노라 /왕이 군대를 일으키거든 /내 戈矛를 수선하여 /그대와 함께 짝이 되리라”¹⁰⁾라고 하였다. 이 작품을 창작하여 시 전체가 3단, 매단은 5구, 매구는 4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應尙能은 이 노래를 3단가사의 격식이 같고 의미도 비슷하지만 고대의 5구자 분절가를 약간의 변화를 주어 4분의 2박자 리듬의 힘있는 행진곡으로 작곡하였다.¹¹⁾



위의 악보 작품은 중국 고대의 애국 시인 屈原 서거 2, 300주년을 기념하여 창작한 단악장의 교향시 〈떡라강의 흐름(汨羅沉流)〉이다. 이 작품은 江文也¹²⁾가 창작한 것으로 작품 62번의 관현악곡이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기

10) 豈日無衣 /與子同袍 /王子興師 /修我戈矛 /與子同仇. 成百曉 譯註, p. 285

11) 周暢 著, 《中國現當代音樂家與作品》,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3, p. 33

12) 江文也(1910-1983)는 대만 대북 담수 출신으로, 1923년 형을 따라 일본에서 유학하

존 음조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작품의 5음 음계적 구성과 화성을 통하여 이 작품과 중국 고대음악 및 호남 민간음악과의 연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고, “어떤 전통적인 창작 틀에 얽매이지 않고 또 어떤 창작유파의 영향에도 구애되지 않고 간결한 음악 소재에 여러 가지 창작수법을 교묘하게 운용하여 건반선율로 하여금 개성이 돋보이는 예술적 정채로 이루어지게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¹³⁾

이처럼 중국 고전시의 원류를 이루고 있는 詩經과 楚辭 작품이 현대 음악으로 불리어지는 현상은 일반 대중 독자와의 친숙한 점과 더불어 전통 서정시에 대한 음악가들의 친숙함에서 비롯된 점으로 판단되며 이런 현대 음악으로의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해 중국 혁명 당시의 혼란스런 사회적 분위기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가요의 창작이 결국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책보다는 귀로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대중 문화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다.

唐代 시인의 작품 중에 음악화한 작품으로 李白의 작품들로 〈秋思〉와 〈清平調〉 〈江夜〉 등을 들 수 있다. 〈秋思〉라는 작품은 北京清華學校와 北京大 음악전습소 등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李惟寧이 작곡한 작품으로, 서정합창곡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는 이미 徐志摩의 대표적인 작품인 〈偶然〉을 서정 독창곡으로 작곡하였다. 그의 이 작품은 음악 풍격이 청신하면서도 피아노 반주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며 동경 우에노(上野)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이수하였다. 1933년 9월, 동경음악학교에 입학하여 야마다 코우사쿠(山田耕作)에게서 작곡과 지휘를 배웠으며, 1938년 3월, 북경사범학원 음악학과에서 교편을 잡고 작곡과 성악을 가르쳤다. 그는 일생동안 15곡의 대형 관현악곡, 1곡의 피아노 협주곡, 4부의 가극과 무극, 6곡의 실내악, 17부의 피아노곡집, 10부의 가곡집, 4곡의 종교음악 및 대만 민가 개편곡들을 썼으며, 관현악, 피아노, 성악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孔廟大晟樂章〉(작품30번)과 피아노곡집 〈斷章〉 16수가 있다. 민경찬 외 지음,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파주: 音樂世界, 2008. p. 296-297

13) 민경찬 외 지음, 위의 책, p. 298

燕支山에 낙엽 질 때, 여인은 白登臺를 바라보네.
 바다 위 푸른 구름이 끊어지고, 單于는 가을에 오네.
 오랑캐들이 변새로 모여들며, 당나라 사절은 옥문관을 돌아오네.
 정벌나간 객은 돌아올 날이 없는데, 하염없이 슬피하니 향초만 시드
 네.

-- 李白 〈秋思〉 14)

〈秋思〉는 1934년 李惟寧이 작곡한 작품으로, 徐志摩의 독창곡 〈偶然〉 처럼 이 작품도 서정적인 합창곡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작품은 李白이 장안에 있을 때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여인의 애타는 심정을 노래로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서정적인 가사와 피아노 반주가 잘 어울리며 청신한 풍격을 지닌 곡이다.

그리고 淸末의 시기에 秋瑾의 작품도 음악으로 작곡된 것이 있는데 그녀의 〈勉女權〉는 일본 가곡 〈風車〉에 근거하여 填詞한 것이다. 秋瑾의 이 노래는 비록 일본의 가곡 〈風車〉에서 따온 것일지라도 당시의 학당 악가로서 널리 불리어졌다. 이 당시의 학당 악가들은 대부분 일본 가곡에서 그 형식을 취해왔는데, 淸末 일본을 유학했던 많은 유학생들과 관련이 있다. 아편전쟁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서 동서의 충돌과 만남을 경험하며 중국의 근대문화가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음악으로써 민중을 계몽하고 선전하기 위해 신형학교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당 악가를 발전시켜 나갔다. 秋瑾의 이 노래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秋瑾의 《勉女權》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1절) 우리들은 자유를 사랑하며, 자유를 격려하는 술 한 잔 들라. 남녀 평등은 하늘이 부여한 것, 소가 뒤에 있어도 만족하다.
 (2절) 구습은 가장 부끄러운 것, 여자는 필경 소나 말의 짝이구나. 서광이 새로 문명을 비출 때, 독립하여 일등을 차지하라.¹⁵⁾

14) 燕支黃葉落, 妾望白登臺。/海上碧雲斷, 單于秋色來。/胡兵沙塞合, 漢使玉關回。/征客無歸日, 空悲蕙草摧。 이백 저, 허세옥 역주, 《李白》, 서울: 혜원출판사, 1987, p. 84-85

15) 1. 我輩愛自由, 勉勵自由一杯酒。男女平權天賦就, 豈甘居牛後。 2. 舊習最堪羞, 女子竟同牛

이 노래는 여성의 목소리로 창가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리듬이 단조로움
 듯 하며 화려하지 않지만 여성의 굳은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처럼 晚淸 시기 秋瑾은 중국 여성의 해방을 위해 여성의 자유와 여성의 평등
 권을 부르짖으며 여성의 권리를 찾자는 진보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봉건
 시대에 중국 여성은 구습에 얽매이며 소나 말처럼 취급당했지만 이제 새로운
 문명의 서광이 비추면서 여성도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秋瑾의 이러한 남녀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외침
 은 중국 근대 지식인의 진보적인 관념의 시작이자 근대 여성의 새로운 발견
 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중국 唐宋詞의 현대 가곡으로의 음악화

宋代의 詞는 “曲子詞의 略稱으로도 說明되듯이 樂曲의 歌詞로 시작되었으
 며”, “詞는 樂曲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지어지기 시작하였고, 또 詞가 樂
 調에 맞춰서 歌唱될 수 있다는 것은 當然한 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詞 문학의 발달은 새로운 시민계층의 성장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하여
 각종 문학 장르의 발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창작계층의 다양화되고 감
 상계층이 훨씬 더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문학 생산자층과 감상자층이 생겨나
 게 되었다. 그리하여 詞 문학은 오늘날의 대중음악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
 는 가장 음악적인 성분이 강조된 문학장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밝은 달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술을 들고 푸른 하늘에 묻노니 /하늘
 궁궐이 /오늘 저녁이 어느 해인지 모른다 /나는 바람을 타고 돌아가고 싶
 지만 /또 아름다운 옥 누각이 /높은 곳에서 추울까 두렵구나 /춤추며 맑
 은 그림자와 노니는데 /어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으랴

馬偶. 曙光新放文明候, 獨立占頭籌. 汪毓和 編著, 위의 책, p. 47

16) 車柱環 著, 《中國詞文學論考》,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p. 52

붉은 누각을 돌아 /아름다운 창가에 다가와 /잠 못 이루는 사람 비춘다 /원한이 없으려면 /무슨 일로 오래 헤어져 있을 때 등근건가 /인간에게는 이별과 만남이 있고 /달에는 등글 때와 이지러질 때가 있으니 /이런 잃은 자고로 운전하기 어려운 법 /단지 오래오래 살아서 /천리 밖에서도 함께 아름다운 저 달을 구경할 수 있기를¹⁷⁾

蘇軾의 이 작품은 ‘水調歌頭’라는 樂府의 곡명이었던 것을 詞牌로 한 작품으로, 이 작품을 지은 동기를 사패 밑에 쓰고 있는데 “추석날 밤 즐겁게 술을 마시다 보니 새벽이 되었다. 매우 취한 상태에서 이 노래를 짓고 아울러 머리 있는 내 동생 子由를 그리는 마음을 기탁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¹⁸⁾ 작품 속에서 소식은 먼 타향의 삶 속에서 불우한 정치적 현실을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심사를 중추절 보름 달빛에 기탁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83년 鄧麗君의 앨범 《淡淡幽情》(전부 12곡)에 수록되어 〈但願人長久〉 제목으로 처음 불리어졌다. 또한 홍콩의 현대 대중가수인 王菲가 〈但願人長久〉라는 제목으로 노래 불렀다. 이 노래는 鄧麗君과 王菲라는 대중적 여가수들의 이미지와 그녀들의 가창력, 그리고 홍콩 음악시장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宋代의 대표적 시인인 蘇軾의 詞가 관계 맺으면서 상호 간의 상승효과를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蘇軾의 사를 음악화한 작품으로는 黃自¹⁹⁾ 작곡의 〈卜算子〉와 靑主²⁰⁾의 〈大江東去〉 등이 있다. 黃自은 중국의 고전 시사에 제재를 취해 많은 예술가곡들을 창작하였는데 예를 들면 〈南鄉子〉(辛棄

17) 明月幾時有 /把酒問青天 /不知天上宮闕 /今夕是何年 /我欲乘風歸去 /又恐瓊樓玉宇 /高處不勝寒 /起舞弄清影 /何似在人間 //轉朱閣 /低綺戶 /照無眠 /不應有恨 /何事長向別時圓 /人有悲歡離合 /月有陰晴圓缺 /此事古難全 /但願人長久 /千里共嬋娟

18) 유병래 지음, 《송사30수》, 서울: 도서출판 아이필드, 2004, p. 114

19) 黃自(1904-1938): 字 今吾, 1904년 3월 23일 江蘇省 川沙縣 출신. 1916년 북경청화학교에 들어가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1924년 미국으로 유학가서 후에 베를린대학교 예일대학에서 심리학과 음악을 공부하였다. 1930년 이후 上海 國立音專 전임교수가 되어 화성악, 음악이론 등을 담당하며 중국 현대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세웠다. 대표작으로 음악회 서곡 〈懷舊〉, 합창곡 〈抗敵歌〉 〈旗正飄飄〉, 독창곡 〈贈前敵將士〉 등이 있다.

20) 靑主(1893-1959): 원명은 廖尙果, 필명은 黎靑主, 靑主 등이다. 廣東 惠陽人이다.

疾詞) 〈點絳脣〉(王灼詞) 〈花非花〉(白居易詞)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대부분 편폭이 길지 않으며 기법이 간단명료하며 구조가 짜임새 있고 형상이 선명하며 원래의 시가 요구하는 의경과 감정을 잘 살려내고 있다.²¹⁾ 여기에서는 악보가 있는 靑主 작곡의 蘇軾의 〈大江東去〉과 李之儀의 〈我住長江頭〉를 예로 들어보자.

장강은 동쪽으로 흘러가며 /물결 일어 천고의 풍류 인물들을 씻어 내
리는구나 /옛날 보루 서쪽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국시대 周郎의 적벽
이었다고 /들쭉날쭉한 바윗돌이 하늘을 찌르는데 /놀란 파도는 강 언덕
을 두드리며 /천 무더기 눈더미를 말아 올린다 /강산은 그림 같은데 /한
때 영웅호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 蘇軾 〈大江東去〉 부분²²⁾

나는 장강 상류에 살고 /그대는 장강 하류에 사는구료 /매일 그대 생
각해도 볼 수 없지만 /장강의 물을 함께 마시는구료
-- 李之儀 〈我住長江頭〉²³⁾

靑主가 작곡한 이 두 작품은 예술적 성취가 높은 작품으로 蘇軾의 작품은 1920년 독일 유학 때에 작곡한 것이고, 李之儀의 작품은 1930년에 작곡한 것이다. 蘇軾의 이 작품은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시로 최근 영화 〈赤壁大戰〉의 주제가로 널리 불리어지기도 했는데, 남성의 중음의 독창곡으로 물결이 흘러가는 듯한 빠르고 격정적인 리듬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예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예술가곡이다. 옛 삼국 시대의 赤壁大戰을 통해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를 아주 호방하게 노래함으로써 곡조가 호방한 특색을 지니고 있고 영탄적인 수법이 쓰이며 영웅들의 높은 기개를 잘 표현하고 있다. 李之儀의 작품은 詞牌가 ‘卜算子’로 남녀의 그리움과 굳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불리

21) 汪毓和 編著, 위의 책, p. 139

22) 大江東去, 浪淘盡, 千古風流人物. 故壘西邊人道是, 三國周郎赤壁. 亂石穿空, 驚濤拍岸, 卷起千堆雪. 江山如畫, 一時多少豪杰.

23) 我住長江頭, /君住長江尾. /日日思君不見君, /共飲長江水.

Largo e maestoso

f *p*

大 江 東 去, 浪 淘 盡, 千 古 風 流 人 物,

f *p* *f*

pp *cresc.* *sf* *ben marcato*

故 壘 西 邊, 人 道 是 三 國 周 郎 赤 壁。

pp *f* *ff* *furioso* *piu mosso*

어지기 가장 적합하며 詞의 대중성과 유행성을 맘껏 살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노래는 느리면서도 유장한 느낌을 주며 높은 여성 음에 더 적합하며 비교적 단순한 리듬을 갖고 있다. 또한 감정이 매우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고 예술적인 우아미가 풍부한 매우 예술적 기교가 높은 예술가곡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송나라 때의 가장 애국적인 시인으로 꼽고 있는 사람으로 岳飛를 들 수 있다. 1920년대 애국주의 열정이 고조되는 시기에 신편 小調歌曲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북경의 白宗魏는 중국 고대 여자 영웅인 花木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24) 周暢(2003: 14-16)

로 小調적인 가곡 〈木蘭辭〉(1920년 8월)을 《音樂雜誌》에 발표하였고, 遼寧의 蔣蔭棠 작사에 田錫侯 편곡의 〈蘇武牧羊〉이 창작되어 대중들에게 널리 유행되었다.²⁵⁾ 그리고 5·30운동 시기 楊蔭瀏는 원나라 때의 薩都刺전 填詞하고 창작한 〈金陵懷古〉의 원곡조를 바꾸어 다시 송대 민족 영웅인 악비의 사 〈滿江紅〉으로 곡을 바꾸었다. 물론 이 곡은 항일전쟁 시기에 다시 林聲翁의 서정가곡으로 다시 작곡되었다.

성난 머리카락 관 위로 솟구치며, /난간에 기대니, /세찬 비가 그쳤다
/고개 들어 멀리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길게 휘파람 부니 /웅장한 감
회가 격렬히 일어난다 /삼십년 쌓은 공명이 티끌처럼 변변찮고 /팔천리
원정길 구름과 달 속에서 싸웠네 /어찌나 한가로움이 기다려지는지 /소
년 머리가 하얗게 변했네. /공연히 슬픔이 밀려드네 //靖康의 치욕을, /아
직 설욕 못 했거늘. /신하의 한이 /언제나 없어지랴? /기다란 수레를 몰아
/하란산이 닳도록 짓밟아 버리리라 /장렬한 내 마음, 배고프면 오랑캐의
살을 배어 요기하고 /답소하다 목마르면 흉노의 피를 마시리라 /다시금
옛 산하를 수복하는 날 /궁궐에서 황제를 알현할 그날까지²⁶⁾

宋代 詞 작품은 가장 현대적인 음악으로 만들기 가장 적합한 장르라고 볼 수 있다. 宋代 詞는 오늘날의 대중가요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사와 곡조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곡이나 대중가요로 만들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서정적인 예술 가곡을 창작한 송사 작품으로 陳田鶴의 음악창작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의 대표적인 서정적인 예술 가곡 중에는 宋詞를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春歸何處〉(黃庭堅詞) 〈楓橋夜泊〉(唐 張繼 詞) 〈江城子〉(宋 秦觀 詞)²⁷⁾ 등을 들 수 있다.

25) 이 작품들과 유사하게 항일 전쟁 시기에도 張霄虎는 1940년에 가곡 〈木蘭從軍〉과 1945년 봄에 교향시 〈蘇武〉등을 창작하여 애국사상을 표현하였다. 汪毓和 編著, 위의 책, p. 248

26) 怒髮冲冠, /凭欄處, /瀟瀟雨歇, /抬望眼, /仰天長嘯, /壯懷激烈. /三十功名塵與土, /八千里路雲和月. /莫等閑, /白了少年頭, /空悲切. //靖康恥, /猶未雪, /臣子恨, /何時滅. /駕長車踏破, /賀蘭山缺. /壯志飢餐胡虜肉, /笑談渴飲匈奴血. /待從頭, /收拾舊山河, /朝天闕. 吳態和 主編, 《唐宋詞彙評》(第二冊),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06, p. 1749.

慢板 慷慨

怒发冲冠，凭栏处，潇潇雨。
歌。抬望眼，仰天长啸，壮怀激烈。
三十功名尘与土，八千里路
云和月。莫等闲，白了少年头，
空悲切！靖康耻，犹未雪。
臣子恨，何时灭！驾长车，踏破
贺兰山缺。壮志饥餐胡虏肉，笑谈渴饮
匈奴血。待重头收拾旧山河，朝天阙。

渐慢

또한 唐宋詞를 작품화한 작품으로 劉雪庵(1905-1986)의 음악창작을 들 수 있다.²⁸⁾ 劉雪庵은 주로 성악 창작을 주로 하며 영화음악과 항일가곡을 창작

27) 西城楊柳弄春柔，動離優，淚難收，猶記多情曾爲系歸舟，碧瓦朱橋當日事，人不(이하 생략).

28) 劉雪庵은 원명이 廷玳이며, 晁如라고도 하며, 필명은 晁靑이다. 1905년 11월 7일 四川省 銅梁縣에서 태어났다. 1930년 가을 상해 國立音專에 들어가 이론작곡을 전공하며, 스승 黃自를 계승하였다. 항전이 폭발한 후 항일가곡 창작에 중사하며 항일음악간행물 《戰歌》를 창간하였다. 1985년 3월 15일 북경에서 병사하였다. 汪毓和 編著, 위의 책, p. 165

하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음악창작 중에는 스승 黃自의 영향 아래 古詩詞를 활용한 예술가곡들을 많이 창작하였는데, 예를 들면 〈楓橋夜泊〉(唐 張繼 詞), 〈春夜洛城聞笛〉(唐 李白 詞), 〈紅豆詞〉(清 曹雪芹 詞) 등이 있다. 그리고 현대시사를 제재로 한 서정적 독창곡 〈飄零的落花〉(自作詞)와 〈秋尋〉(許建吾 詞) 등도 있다.

그리움의 피눈물 다하지 않았는데 흥두를 내던지네, /봄날 버드나무와
봄꽃 아직 다 피지 않았는데 그림 같은 누대에 가득하네, /비바람 몰아치
는 창문에 황혼이 깃든 뒤에도 잠들지 못하네, /새로운 근심과 옛 근심을
잊을 수 없어, / 옥쌀밥 금반찬도 목에 걸려 삼킬 수 없는데, /거울 속의
꽃 같은 얼굴 여윈 모습 볼 수 없네, /눈썹 다 퍼지지 않는데 더욱 흘리
는 눈물 막을 수 없네, /눈썹 다 퍼지지 않는데, /더욱 흘리는 눈물 막을
수 없네, /아~ 아~ /막을 수 없는 청산의 은은함 같구나, /유유히 흐르는
푸른 물이여, /아~ 아~ /막을 수 없는 청산의 은은함 같구나, /유유히 흐
르는 푸른 물이여.

-- 曹雪芹 詞 〈紅豆詞〉 29)

이 작품은 清代 曹雪芹 장편소설 《紅樓夢》에 나오는 시가로 林黛玉의 노래이다. 賈寶玉을 사랑하고 있는 그리운 마음을 사랑의 증표인 '팥콩(紅豆)'를 매개로 삼아 노래하고 있다. 점점더 여위어 가는 꽃 같은 얼굴이지만 봄의 자연 경치에 그것과 대비되어 더욱 푸르고 짙은 녹음을 던지고 있는데 흐르는 푸른 물 같은 세월 앞에서 애타는 주인공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노래는 劉雪庵의 작곡으로 4분의 4박자로 중간속도의 노래로 비교적 그리움의 애타는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후렴구에 이르러서 반복의 효과를 통해 시적 정취를 더해 주고 있다.

29) 滴不盡相思血淚拋紅豆, 開不完春柳春花滿畫樓; 睡不穩紗窗風雨黃昏後, 忘不了新愁與舊愁. 咽不下玉粒金波噎滿喉, 瞧不盡鏡裏花容瘦; 展不開眉頭, 捱不明更漏, 展不開眉頭, 捱不明更漏. 呀, 呀, 恰似遮不住的青山隱隱, 流不斷的綠水悠悠. 呀, 呀, 恰似遮不住的青山隱隱, 流不斷的綠水悠悠. 汪毓和 編著, 위의 책, 261-262쪽. 李平收 左小玉 選編, 《經典校園歌曲·續》, 海口: 南海出版公司, 2004, p. 290

中速 *mp*

滴不尽 相思血泪

抛 红 豆, 开不完 春柳春花 满 画 楼,

mf

睡 不 隐 纱窗风雨黄 昏 后, 忘 不 了 新 愁

渐弱

与 旧 愁, 咽 不 下 玉 粒 金 波 噎 满 喉, 瞧 不 尽 镜 里

mf

花 容 瘦, 展 不 开 眉 头

捱 不 明 更 漏, 展 不 开 眉 头, 捱 不 明 更 漏,

呀 呀 恰 似 遮 不 住 的 青 山

隐 隐, 流 不 断 的 绿 水 悠 悠。

呀 呀 恰 似 遮 不 住 的 青 山

隐 隐, 流 不 断 的 绿 水 悠 悠。

南宋 詞人 중 음악화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姜夔(1155-1221)³⁰⁾의 〈揚州慢〉이 있다. 이 작품은 詞人이자 음악가인 姜夔가 쓴 사조가곡으로 자신이 가사와 곡을 만든 작품이라 ‘自度曲’이라고 불리우며, 《白石道人歌舞》를 간행할 때 樂譜를 ‘俗字譜’(古工尺字音譜)라 하였다.³¹⁾ 그의 이 작품은 丘瓊蓀의 譯譜를 통하여 다시 노래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 작품은 南宋 光宗 紹熙 7년(1196년) 동지 저녁 무렵, 姜夔가 揚州를 지나며 창망한 저녁 경치 속에서 군대호각 소리를 듣고 처량함을 느낌을 이 작품을 썼다. ‘慢’ 사조가곡의 한 체재이며 느린 속도로 서정적이며 가곡은 雅樂音階이며 宮調式이고 곡조가 단순하며 걱정이 풍부하다. 全曲이 上下片(兩段體)으로 나누어져 각 편에는 起承轉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네 개의 樂句 結束音은 1, 3, 6, i 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조는 換頭를 채용하는 수법과 전형적인 선율의 중복 도는 변화중복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上下片의 마지막 한 구는 완전히 같고 호응하는 가운데 통일되어 있다.³²⁾

회수 동쪽의 이름난 도시 /죽서정 좋은 곳에 /안장을 풀고 초행길 멈추었네 /십리에 춘풍 지나가니 /냉이 보리 푸르름을 다하네 /오랑캐가 강남을 엿보고 간 뒤부터 /버려진 연못 교목도 /오히려 전쟁 애기를 싫어하네 /황혼 무렵 /맑은 뿔피리 소리 싸늘하게 들려오고 /주위는 텅 빈 성만 남아 있네.

-- 姜夔 〈揚州慢〉 부분³³⁾

30) 姜夔는 南宋 시대의 음악가이자 詞人으로 江西 波陽人이며, 자는 堯章, 호는 白石道人이다. 시사에 뛰어났으며 악률에 정통하여 직접 작곡을 하며 《白石道人歌曲》을 편찬하며 自度曲 詞調歌曲 〈揚州慢〉 〈暗香〉 〈鬲溪梅令〉 등 14수를 수록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자연 경치를 묘사하는 것이 많으며, 당시의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의 詞調歌曲은 중국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 人民音樂出版社教育編輯室編, 《普通高中音樂課程標準實驗教科書音樂鑒賞教師用書》,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4, p. 194

31) 人民音樂出版社教育編輯室編, 위의 책, p. 194

32) 人民音樂出版社教育編輯室編, 위의 책, p. 194

33) 淮左名都, 竹西佳處, 解鞍少駐初程. 過春風十里, 盡薺麥青青. 自胡馬窺江去後, 廢池喬木, 猶厭言兵. 漸黃昏, 清角吹寒, 都在空城. 吳態和 主編, 위의 책, p. 2766

揚州를 지나며 그곳의 봄 경치를 보며 자신의 내적 심사를 반영하고 있는 시이다. 봄 경치를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자신의 현재 처지는 쓸쓸하고 처량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처량한 자신의 심정을 차가운 달빛에 기탁하며 노래하고 있는 작자의 내면 감정을 현대의 가곡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姜夔의 自度曲 詞調歌曲으로 〈暗香〉이 있는데, “강가는 /때마침 적적하다. /소식 전하러 해도 길이 멀어 탄식하는데 /밤새 눈내려 쌓여만 간다. /비취 술잔에 쉬이 눈물 흘리며 / 흥색 꽃받침 말없이 그리움에 잠긴다. /손을 끌어 잡았던 곳 오래도록 기억하니 /천 그루 매화에 압도되는데 /西湖는 여전히 춥고 푸르다. /또 조각조각, /흩날려 떨어지니, /언제 다시 만날까.”³⁴⁾(下片)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석호 선생을 찾아갔더니 작품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疏影〉 〈暗香〉 두 곡을 써 주었더니 음절이 아름답고 조화로웠다고 하며, 원래는 송나라 시인 林逋의 〈山園小梅〉에 나오는 ‘성긴 그림자 비스듬히 비치네, 맑은 시내에 그윽한 향기 떠다니네, 몽롱한 달빛 아래에(疏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에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³⁵⁾

IV. 나오는 말

이상으로 중국 고전 시사와 현대 음악과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작가와 작품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문학과 그림의 관계를 강조하듯이 문학과 음악의 관계 또한 비교문학의 주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의 단조로운 문학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서 문학과 다른 예술들 간의 상호 조명을 통해 새로운 비교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문학 자체의 연구보다 다른 예술들 간의 상호 조명하는 가운데 문학의 새로운 속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영역의

34) 江國, /正寂寂. /歎寄與路遙, /夜雪初積. /翠樽易泣, /紅萼無言耿相憶. /長記曾携手處, /千樹壓, /西湖寒碧. /又片片, /吹盡也, /幾時見得. 유병례 지음, 위의 책, p. 201

35) 유병례 지음, 위의 책, p. 202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과 음악의 상관성 역시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이미 중국 문학에서 문학의 기원을 논할 때 음악과의 일치를 논하는 同源說이 존재하며 점점 문학과 음악이 분리 발전하면서 이제는 문학과 음악이 각각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학과 음악의 관계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중국의 고전 詩詞가 현대 예술가곡으로 음악화 되는 현상을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현대의 서정가곡 및 예술가곡으로 음악화 된 중국의 고전시와 唐宋詞의 주요한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았다. 중국 고전시가 현대 가곡으로 음악화 된 경우로 詩經과 楚辭의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혼성 사부합창으로 합창곡 형태로 노래로 작곡되었으며 1940년대의 시대현실 속에서 小雅의 〈鹿鳴〉을 江定仙이 작곡하여 음악화 하였고, 秦風의 〈蒹葭〉를 陳田鶴이 작곡하여 음악화 하였다. 또한 屈原 서거를 기념하는 교향시 〈역라강의 흐름〉이라는 작품도 江文也에 의해 관현악곡으로 작곡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볼 때 현대에서도 중국 고전시의 첫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서정시 작품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노래를 통하여 새롭게 청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대의 대표적인 시인인 李白의 작품 〈秋思〉이나 〈秋夜〉 같은 작품도 음악화 되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李白의 시가 가장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까닭은 시가 비교적 단순하고 이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여인의 내면세계를 서정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중국 唐宋詞가 현대 가곡으로 음악화 되거나 현재의 활동 중인 가수들에 의해 대중가요로 불리어지는 현상도 찾아볼 수 있었다. 唐宋詞가 음악화 된 경우가 비교적 많은 까닭은 詞라는 문학장르가 현대의 가곡이나 대중가요의 가사와 잘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며, 전통적인 詞 문학이 오늘날의 서정문학과도 가장 잘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詞는 결국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통 문학의

음악화를 통해 중국의 민족적·문화적 자부심을 확대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현대 시기에 唐宋詞가 음악화 된 작가와 작품을 헤아려 볼 때 작가로는 蘇軾, 馮延巳, 李后主, 周邦彥, 岳飛, 文天祥, 朱希眞, 范仲淹, 李清照, 姜夔 등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있으며 그들의 대표작들을 현대 예술가곡으로 창작해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蘇軾의 호방함을 살펴볼 수 있는 〈大江東去〉나 타향을 떠돌며 자신의 불우한 정치적 삶에 대해 되돌아보는 〈水調歌頭〉 같은 작품은 현대 가곡으로 음악화한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蘇軾의 작가적 지명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의 예술성이 음악적으로 잘 승화되어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중국의 애국 시인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岳飛의 〈滿江紅〉이라는 작품도 있다. 岳飛의 작품도 가장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제재라고 할 수 있으며 한족 문화의 원류 속에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비분강개하는 岳飛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작품이 1920년대 중국의 애국주의 열풍에 힘입어 청년의 우국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항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계몽적 성격의 음악으로 재창조된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淸나라의 대표적인 애정소설인 《紅樓夢》 속의 시가인 〈紅豆詞〉라는 작품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소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의 애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듯 음의 고저와 전주를 통해 애타는 심정을 잘 음악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중국의 음악사를 볼 때 중국의 고전시나 唐宋詞를 제재로 하여 서정가곡 또는 혁명가곡 등 예술가곡으로 창작된 경우가 많은 것은 그 나름의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시나 사는 서정적인 장르로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남녀의 애정이나 사회현실의 비판, 애국의 열정 등을 표현하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나 사는 기본적으로 문학의 음악성을 매우 중시하는 장르로 음악의 곡조가 없어도 그 자체로도 낭송했을 때 음악적인 요소가 중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리고 시나 사는 중국문학에서 가장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장르이며 일반 사람들 누구라도 쉽게 익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시나 사 작품을 제재로 음악화 하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했을 때 멜로디나 가사가 익숙함으로써 쉽게 정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중국 고전 시사가 현대 음악과 상호 결합하는 가운데 문학과 음악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중국 고전 시사가 현대 음악으로 재창조되는 현상을 탐구한 바, 앞으로 중국 사회의 대중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문학과 음악의 상호 결합 현상은 지속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며 그에 따른 문학과 음악의 상관성을 좀더 다양하게 조명함으로써 문학의 연구영역을 비교문화적 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라 중국 고전 시사를 다른 예술 장르인 음악이나 그림, 또는 조각, 뮤지컬 등과 결합하여 바라보려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발상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가 계기가 되어 향후 더욱 진전된 연구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민경찬 외 지음,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과주: 音樂世界, 2008
-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08
- 宋秋敏 著, 《唐宋詞與流行歌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 施議對 著, 《詞與音樂關係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8
- 王彬 著, 《當代流行歌曲的修辭學研究》,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2007
- 汪毓和 編著, 《中國近現代音樂史》,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9
- 楊海明 著, 宋龍準·柳種睦 共譯, 《唐宋詞史》, 서울: 新雅社, 1995
- 艾治平 著, 《婉約詞派的流變》,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7.
- 葉嘉瑩 著, 《北宋名家詞選講》,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吳態和 主編, 《唐宋詞彙評》(第二冊),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06
- 于潤洋·吳斌 主編, 《音樂鑒賞》,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9
- 유병례 지음, 《송사30수》, 서울: 도서출판 아이필드, 2004
- 윤호병 저, 《비교문학》, 서울: 민음사, 1995
- 이혜순 외 저, 《비교문학의 새로운 조명》, 서울: 태학사, 2003
- 이백 저, 허세욱 역주, 《李白》, 서울: 혜원출판사, 1987
- 이태형 역주, 《우리말로 읽는 송사 300수》,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 李平收 左小玉 選編, 《經典校園歌曲·續》, 海口: 南海出版公司, 2004
- 人民音樂出版社教育編輯室編, 《普通高中音樂課程標準實驗教科書音樂鑒賞教師用書》,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4
- 朱光潛 지음, 鄭相泓 옮김, 《詩論》, 서울: 동문선, 1991
- 周暢 著, 《中國現當代音樂家與作品》,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3
- 車柱環 著, 《中國詞文學論考》,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 홍정수·오희숙 지음, 《음악미학》, 과주: 音樂世界, 2008
- 喬雪, 《文學與音樂關係研究》, 碩士學位論文, 南京師範大學, 2007
- 劉汝佳, 《詩歌與音樂韻律的美學研究》, 碩士學位論文, 黑龍江大學,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lassic Chinese poetry and Ci(詞) poetry
and Modern music

Park, namyong · Kim, youngmyeung

This study is about the existing state of the conversion of music from Classic Chinese poetry and Ci poetry to modern songs. The correlation between Chinese literature and music is studied using the method of comparative literature on this paper. Beginning from Shi jing(詩經) and Chu ci(楚辭), the tradition of Chinese poetry has achieved the most dominant position in Chinese culture through the present day and is having a great effect on Chinese socioculture today. In this respec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onversion of music from Classic Chinese poetry and Ci poetry to modern songs has been made up pretty high. Specially these days we can see Chinese popular singers are creating new modern popular music writing the lyrics with Song Ci poetry. Many works of Classic Chinese poetry and Ci poetry were created into modern lyrical songs, chorus, or revolutionary songs about 1940s, since 1920s. There are two cases on this happening, one is the music to be created on the base of Classic Chinese poetry and the other is the music to be created on the base of Chinese Tang Song Ci(唐宋詞).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re are 'Jian Jia(蒹葭)', 'Lu ming(鹿鳴)' and etc. in Shi jing and the symphonic poem, 'the Flow of the Guluo river(汨羅沉流)' which is made in memory of the decease of Qu Yuan(屈原). Also there are many cases of the conversion of music with the works of Li bai(李白) who wrote the best poetry among poets of his time.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 representative works had the conversion of music such as the ones of Su Shi(蘇軾), Yue Fei(岳飛), Li Qing Zhao(李清照), Jiang Kui(姜夔), and etc. mostly. This existing state of the conversion of music from Classic Chinese poetry and Ci poetry to modern songs is happening because the musical character of poetry and Ci poetry have the affinity that makes it easy to be the conversion of music and because they have

the outstanding familiarity with the audience when the poetry and Ci poetry in familiar to the readers become the conversion of music. Through the mutual correlation between this literature and music, we can understand literature refreshingly and comprehend the phenomenon of diffusion in the popular culture of literature.

Key Words : Classic Chinese poetry and Ci(詞) poetry, literature and music, popular culture, comparative literature, Correlation

투 고 일 : 2011. 1. 10. / 심 사 일 : 2011. 1. 20. ~ 2011. 2. 10. / 게재확정일 : 2011. 2. 17.